■ 20년 바라보는 광주비엔날레 과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설치된 한국계 미국작가 마이클 주의 '분리불가' 작품. 광주 민중항쟁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시민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108개의 방패가 연결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대미술 눈높이 교육 상설화해야

시민 참여프로그램 홍보·관리 강화

전시관 개선·관람객 유입 대책 필요

풍성한 미술 축제는 끝났지만 숙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 4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이 전시관을 둘러보는 등 '아시아 대표 미술제'로 위상을 재확인했지만 9회째를 치르면서도 대중의 심리적 거리감은 여전히 먼데다, 후진적 관람문화 등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20년을 앞두고 '역할 재정립'등 갈 길이 멀다.

◇'그들만의 미술쇼?'문화 마인드 낙후=광주비엔날레재단이 내놓은 관람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일 현재 판매된 전기간 통용권은 고작 261장에 그쳤다.

66일간의 전시 기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 무각사·대인시장·양동시장 등에는 전 세계 40개국 92명(팀)에 이르는 유명 작가들의 303개 작품, 1478점이 차려졌다.

하루에 다 둘러보기란 쉽지 않은 만큼 비엔날레재단은 느긋하게 관람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간 입장권을 마련했지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가뜩이나 설치·영상 작품이 6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난해한 현대미술의 집합소'라는 비엔날레에 대한 시민들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문화 마인드를 키워줌으로써 '비엔날레 키즈'를 육성하겠다는 애초의 구상도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7일까지 입장한 단체관람객은 8만6180명. 전체 관람객 41만9700명의 20% 수준. 초·중·고등학교 단체관람객만 해도 5만586명에 달했지만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 관람'에 그쳤다. 교육당국의 편의주의적 발상까지 겹치면서 매주 목요일·금요일에만 집중돼 도슨트들의 전시 설명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떼밀려 다니다가 돌아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적정 하루 관람인원(5632명)을 훌쩍 넘는 8700명이 오전 3시간 동안 집중되는 일이 빚어지면서 작품 관람을 막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문화 마인드가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진적 관람 문화도 나아질 리가 없다. 수십여차례에 걸쳐 부서지거나 흐트러진 작품을 복구하는 일이 빚어지고 '국제미술행사'기간 작품 앞에 보호펜스를 치는 '원시적' 행태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난해한 현대미술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는 커녕, 문화 마인드 육성도 힘들다는 게 지역 미술계의 목소리다. 평소에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눈높이를 고려한 상시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슨트 해설 시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엔날레 시너지 효과 포기할텐가=올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은 예년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특히 비엔날레재단이 애초 목표로 세워놓았던 유료관람객(30만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형편이다.

창설된 1995년 162만명(유료 152만5000명)의 경이로운 관람객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년 격감하고 있는 관람객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 유료관람객의 경우 ▲2회 85만1900명 ▲3회 45만2200명 ▲4회 31만8400명 ▲5회 41만7000명 ▲6회 41만6500명 ▲7회 29만1900명 ▲8회 29만4000명 등으로 감소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비엔날레라는 킬러컨텐츠를 활용한 광주시의 도시 마케팅도, 경제 활성화도 먼 얘기다. 각종 비엔날레라는 이름의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 더욱 그렇다. 관람객 모집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 기법과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후원 감소 등으로만 넘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마실'이라는 시민 참여프로그램도 정작 참여 인원은 2000명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홍보나 관리는 이뤄지지 않아 일반 관람객들은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등 소외되거나 홀대받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시장 이대로 놔둘텐가=올 광주비엔날레 기간 비만 오면 직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일부 전시관에는 떨어지는 빗물을 막기 위해 세숫대야를 설치해 놓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비엔날레 전시 공간도 수십명의 작가가 자신들의 독창적 작품을 풀어놓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시공간은 실험적이거나 거대한 규모의 야심찬 기획 전시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로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엔날레 전시관에 대한 폭넓은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

페스티벌 오!광주 여성합창제 개막

9~11일 28개 합창단 참여…빛고을시민문화관

페스티벌 오!광주 여성합창축제가 9일~1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합창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28개 합창단 1000여명이 참여한다.

9일 오후 7시 열리는 개막 공연 '멋진 우리 친구들-명품 합창페스티벌'에는 광주·여수·안산시립합창단이 출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지역 유명인사들로 구성된 '카메오 합창단'이 '빛고을 아리랑'을 선사한다.

10일에는 '멋진 광주 친구들-광주합창마라톤'이 펼쳐진다. 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광주파랑새 합창단, 파아모니 남성합창단, 광주레이디스 싱어즈, 광주 사랑의부부 합창단 등 지역 아마추어합창단 13개팀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날인 11일 열리는 '멋진 여자 친구들-여성합창축제'에는 수피아여중합창단, 하모닉스합창단, 광주북구·서구 여성합창단 등 지역 6개 여성합창단이 출연한다. 행사 기간중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에서는 합창악보전이 열린다.

www.festival.or.kr. ansdml 062-670-7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 성찬에 '두근두근'

모나무르심포니 연주회 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황성규

이경민

모나무르심포니오케스트라(단장 이형석 전남대 교수)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황성규(전남대) 교수의 지휘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로 문을 열며 협연자로 바이올리니스트 이경민씨가 나선다.

9살의 나이에 벨기에로 유학을 떠난 이씨는 1990년 브뤼셀 왕립음악원에 최연소로 수석입학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입학한 퀸 엘리자베스 학교를 수석졸업했다. 현재 '브뤼셀 비루투오스' 멤버로 활동하며 이화여대와 동덕여대 등에 출강중이다. 협연곡인 비에냐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은 광주에서는 초연되는 곡이다.

또 소프라노 이경은(전남대 겸임교수)씨는 이수인 곡 '내 맘의 강물'과 마스네의 오페라 '르 시드' 중 '눈물지어라 내 눈'을 들려준다.

피날레곡은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1번과 2번'이다. '솔베이그의 노래', '오제의 죽음', '아침의 기분' 등 친숙한 곡들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모나무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97년 창단한 모나무르 실내악단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죠지 옥토스, 김남윤, 양성식, 김정원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문의 1588-78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성소리 강산제 '심청가' 완창

주소연 발표회…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소리꾼 주소연((사)한국판소리보존호 광주지부장) '심청가' 완창발표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주씨가 이번에 선보이는 소리는 보성소리 강산제 조상현류 '심청가'. 보성소리 강산제는 소리 구성이 잘 짜여 음악적 형식미가 뛰어나고 절제된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유파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점잖은 사설이 특징이다.

주씨는 단중머리로 시작하는 '삯바느질' 대목부터 '그때여 심생원은' 까지' 전 대목을 완창할 예정이다. 고수는 박시양·임영일씨.

임방울국악제(2004)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조상현·김수연·전인삼 선생을 사사한 주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며 세한대 겸임교수로도 활동중이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으로의 '초대'

내일 문빈정사 '가을 음악회'

무등산 정상을 마지막으로 개방하는 행사를 기념하는 가을음악회가 오는 10일 오후 1시30분 무등산 문빈정사앞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사)광주실버연예예술협회(회장 유방희)가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퓨전그룹 '김희연과 아우름'을 비롯해 MBC 대학가요제에서 '바윗돌'로 대상을 수상했던 정오차, 재즈 그룹 장소영밴드, '그대를 칭칭', '당신은 짱이야'의 트로트 가수 손빈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광주실버예술단원들도 무대에 선다. 문의 062-352-10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